

## 2. 풍성한 삶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본문: 신명기 6장 4-5절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 곧 너라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성공의 비결

2014년 축구선수 이영포가 [갯피플 매거진]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라던 대로, 또 어찌면 그 이상으로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영포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운동하면서 성공이나 승리의 경험보다 어찌면 실패하고 패배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경기는 늘 결과로 평가되기에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처음엔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걸 딛고 일어서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반대로 당장은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의 길로 가는 사람도 종종 봤어요. . .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겐 현재 성공을 주는 게 좋은 거고 어떤 사람에겐 지금의 실패가 좋은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엔 완전히 달라보여도 하나님 눈엔 성공이나 실패나 사실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몇 년 전 냈던 제 책 제목이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홍성사)였잖아요. 중요한 건 인생에서 무엇이 성공이나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받은 축복을 간직하는 것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열매 맺는 삶’에 이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성공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는 약속

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내 모습이 아닐까요?

존 맥스웰의 [열매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레오나르드 라벤힐(Leonard Ravenhill)은 유럽을 여행하던 중 어떤 마을에 들렀다. 동행하던 여행자 중 한 사람이 그 마을 노인에게 물었다. "이 마을에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일이 있습니까?"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오, 그저 갓난아이들뿐이죠." 무엇이든 성취한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위해 내뺐었던 사람이다. 기성품 인생이란 없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성공을 위해 구비되어 출생하는 사람은 없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이룬 사람은 누구나, 또 효율적이던 사람은 누구나 고물 줄처럼 늘어나는 법을 배운다. 가장 값비싼, 그러나 가장 흔한 실수는, 성공이란 소수 천재들의 전유물이라거나 혹 신비한 무엇이라는 생각이다. 성공은 인생의 도전을 향하여 내뺐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실패는 도전을 피해 움츠릴 때 생긴다. 누구도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열매맺는 지도자, p39>

제가 가끔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갔던 때, 얼마나 뺐을까요?

상상할 수 없으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3.4kg 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어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비결'을 아는 것이죠.

여기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야만 하는 길을 제대로 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제가 어려서 많이 보았던 무협지를 볼 때면 빠지지 않는 공식이 있다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공을 배우는 주인공이 '무공비급'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 비급을 가지고 수련을 하다보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며 절치부심하며 꿈꾸던 일일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해서 성공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공은 세속적인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누리는 풍성한 삶이죠.

그리고 그 성공과 풍성한 삶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질문과 동시에 답을 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급 땅에서 종 되었던 민족을 끌

어 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성공’과 동의어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말이 세속적인 것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이 성공이 결코 세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축복, 그리고 그 후손들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신명기 6장 1-5절의 말씀은 5장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33절.**

29.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30.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들어가라 이르고

31.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2.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비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을 지속할 비결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로 고백되고 믿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성공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누군가를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낼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김요한 목사가 쓴 [상식이 통하는 목사]에 보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신 이유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통해 ‘성공과 실패’

의 기준을 보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목회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아니, 외형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목사의 삶이고 목회의 길이다. 굳이 말한다면 목회에는 성공 대신 '성화'만이 존재할 뿐이다.

왜 목사로서 살아가는가?. 왜 목회를 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따라서 성공한 목사와 실패한 목사라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사와 타락한 목사가 존재할 뿐이다.

우리 주변에는 초대형 교회를 일구었어도 실상은 타락한 목사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불품없는 교회를 섬겨도 하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거룩한 목사가 존재할 수 있다. <김요한, 상식이 통하는 목사, p102>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2절.**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무협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협지에 등장하는 공식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살아져버린 것 같았던 초절정의 무공을 얻기 위해서 익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기'를 모으는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자세와 같은 것들이죠.

힘들기는 하지만 이것을 익혀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초식들은 세상에 나와 있던 허접한 무공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초식과 기를 운행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순간 '무공'이 급작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그 초절정의 무공을 터득하는 초식을 연마해 보겠습니다.

##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 .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보겠습니다.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성공의 비법,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recipe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이 비법이 중요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신명기 6장 6-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  
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비법과 초식을 완전히 몸에 익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 성공의 비결, 무공의 최종 완성 단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이고, 뜻은 무엇이고, 힘은 무엇일까요? NIV 성경에는 'heart, soul, streng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레바브'는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내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인간의 열정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욕망을 다 합하여 하

나눔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힘’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 혹은 권세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

김윤희 교수가 **CBS 성서학당에서 신명기 말씀을 강해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히브리 사상에서는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전심을 다하라는 의미이며,

뜻은 영혼을 의미하며,

힘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아닐까요?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법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특권이 무엇인가요?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께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 적으로 보면 우리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조금은 찌질 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에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인민을 가장 타락한 자들로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담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서 이영표 선수는 리더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리더’가 된다는 것, 그리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 우리가 자유와 구속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므로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고 싶어서 한 술과 마약과 취미 생활들로 인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을 자유라고 말하는 반면, 성경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혹은 나 자신을 위해 하지 않는 것’ 을 자유라고 정의한다. 세상이 ‘마음대로 하는 것’ 을 자유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사랑하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 말 들입니다. HOW 주석에 의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번역된 ‘아하브’는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에 동반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스러운 행동,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마치 고대 근동의 속주들이 종주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것이 계약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을 의미하듯이,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언약 신민으로서 그의 종주 여호와에 대한 성실성,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Tigay).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은 그 대상을 실망시키지 않는 일들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서 ‘마땅히 행할 일’들이 명확해 집니다.

그것이 행복하고 복된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낫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가 가장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가운데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성공의 비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가운데 ‘당당함’이 묻어납니다. 왜냐요? 이런 믿음 때문이죠. 4절.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당당함’이죠. 우리가 몇 주 후에 나눌 말씀가운데 ‘갈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85세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 했던 사람, 꿈의 사람이죠. 갈렘의 당당함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대한 신뢰와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들 수 있을까요? 약속해 주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말 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 .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커튼이 없게 해주세요. 멀리서 볼 때는 교회가 대단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커튼 하나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상한 게 있고, 또 젖히고 들어가면 쉬쉬 하며 성도들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고, 들기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당당하려면 투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당당함.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투명한데서 오는 당당함.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도 않고 꿀리지 않는 당당함을 갖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장가도 가야겠고, 시집도 가야겠고, 취직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젊은이들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 6장 10절**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치졸한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특례법을 만든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그 울무에 넘어갈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내



가 뭐 기죽을게 있냐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당함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을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 더 이상 사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당함 말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의 당당함을 보세요.

#### 요일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정직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인생이 우리 삶의 최선임을 믿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열매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일평생 44개의 조각품에 손을 댔는데 14개만을 완성시켰다. 그중 ‘다윗’과 ‘모세’가 아마도 제일 유명할 것이다. 나머지는 미완성으로 남았다. 이것들은 팔이나 혹은 머리만이 조각된 돌덩이일 뿐이다. 이태리의 한 미술관에 가면 이 실현되지 못한 위대한 천재의 잠재력인 미완성 조각들을 관람할 수 있다.

미켈란젤로가 예술 작품을 미완으로 남겼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일상의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마치 미처 개발되지 않은 돌덩이 같다는 점이다. 만일 우리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가 야구 방망이가 아닌 조각칼로 쪼아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고 마땅히 그들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는 돌덩어리로부터 그들을 풀어놓아 준다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봉사를 해주는 것일 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신감이야 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12월 한국축구 감독을 맡은 거스 히딩크는 “한국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말이었죠.

우리가 늘 듣던 말은 한국 축구는 ‘체력’이 장점이고 ‘기술’이 약점이라고 하는 말이었으니 말이죠.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는 요즘도 합니다. 한국 축구는 유럽에 비해 멘탈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한 멘탈은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경기장 밖에서의 생활이 곧 경기장 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멘탈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멘탈은 훈련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고,  
최고의 기술은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일들이야말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비법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틀림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